

사설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춤지도 덤지도 않은 날씨여서 인간이 활동하기에 좋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태계 전반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잔인한 계절'인 4월 동안 우주와 싸우며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킨 생태계는 5월에 이르러 비로소 안착한다.

5월은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족간에 서로 감사하고 축하해주는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고성지역에서는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등의 주관으로 2일부터 8일까지 지역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위안잔치를 마련해주고 푸짐한 음식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첫번째 공간이면서, 장차 사회의 일원이 되어 험난한 여행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건강한 몸을 키우고 마음을 수양하는 평

화로운 공간이다. 희망과 악동이 절정을 이루고 온화한 기운을 보이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도 계절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화

특히 빈부의 격차나 가정내 복잡한 사정 등으로 인해 가정에 대한 느낌도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등지처럼 여겨졌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극복하고 싶은 운명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진정한 가정은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완성된다. 따라서 지역의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일을 실천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혼자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의심이 없어야 하듯이, 지역사회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화가 없는 가정의 자녀가 폐타선을 타는 것처럼,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반목하게 된다.

고성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들은 가정의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엮인 관계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처지라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며

만사성'이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와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등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은 아직도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화와 핵가족화, 저출산, 이혼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정의 의미도 점점 퇴색해져가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처럼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인간이 태어나는 첫번째 공간은 가정이지만, 두번째 공간은 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역을 제2의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老壯派(백전노장)의 활동력을 인정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옹호 또는 권장 그의 기능을 최대 활용함은 노동인력 보충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생산력에 도움이 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느 '새 박사'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깨닫게 되었다. 필자는 해본 일이라곤 '말하고 배움 그리고 가르친 사업뿐'이라 요즈음도 미련이 남아 무엇을 하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하고픈 일을 해본다.

'국민정신이 건전해야 국민이 건강 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공감한 말이다. 근면성은 부를 낳고, 懈怠(나태; 게으름)는 빈곤을 낳으니 빈곤은 질병을 自招(자초; 스스로 가져옴)하고 사망의 종말을 고하노니 이를 따르는 자가 없다는 것.

그런데 요즈음 이상기류가 우리사회에 흐르다하니 국민 각자가 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는 것. 아니 멀쩡한 최고학부 출신 또는 고학력자 청년들이 일부 놀고먹고자 하는 자들을 하루속히 우리 주변에서 퇴치하는 것이 汎國家的(범국가적)으로 일소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다. 무엇하는 자인가? 밥 먹고 놀고 자고 싸고 하는 일뿐이다 (백수건달도 아닌 자). 밥은 어떻게 입에 들어오는가? 남아 있는 재화를 소비한다. '다 먹어 버리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때에 가뭄아 하겠다. '지금무엇을 생각 하는가? 아무생각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근면은 부를, 나태는 빈곤을 낳는다

없다. '어떻게 밥은 먹는가? 옷은 어떻게 입는가? ... 이들을 구제할 자는 누구일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최고수 해커 필리핀에 숨어있음 philko(필코=필리핀·코리아, 꼭 반듯이 코피날까?) 현대 캐피탈 필 코 프로젝트 모형도는 1)정모36세 협박 필리핀 도피= 기획 2)허모 40세 범행 계획알람=연출검거, 조모 47세 자금책 중국도피, 조양(여자친구 중국 동포)=조연, 류모 39세=조연 검거, 금액3)2000만 4)2000만원사기금액, 신운선37세 주연 =두목 5)2000만원사기 6)사이버공격, 해킹, 5억 입금 하라! 협박(메일)=필리핀 도피 '현대캐피탈'은 7) 1억 원 입금 =유럽법인계좌 이용 8)현금 인출했다.

서울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 허모를 공갈협의로 공항에서 체포했다. 범죄

후엔 체포도 중요하지만 해킹이나 테러를 예방이 마련되는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국내외지출 할 때 일정금원은 이유여하불문 철저한 검색 (신원확인 비밀보장을 통한 동영상, 지문확인)을 거쳐야하고 또 하나는 보증인(본인, 증인 확인 필하고) 있어야한다는 것.

테러에 대해선 국제공조체제 확립(UN 협약)은 전 UN회원국과 공조협약을 체결 하여야 되겠다는 것. 그래도 놀고먹는 자가 양반일까? 아니지요. 무서운 독버섯의 일종이지요. 국가사회를 썩먹기 때문이다.

건강365 오늘의 지혜를 찾는 식품은 고추다.

고추(辣椒-랄숙)는 신이 인간에 下賜(하사; 내림)한 좋은 식품으로서 성질은 뜨겁고 맵고 독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9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것.

온화한 가운데 濕性(습성; 습기성질제거)을 해소 血氣(혈기; 피의 기를 원활히 운행 도움)을 潤滑(윤활; 매끄럽게 해줌)하게 한다. 風寒(풍한; 몸이 냉기가 있는 것을 예방해 줌) 비린내를 없애고 입맛을 돋우며 大腸(대장;오장의 하나)를 편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영양가는 높으며 건강한 사람에게 많이 식용하면 더욱 건강하고 신체가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해롭다.

1)凍瘡(동창; 얼어서 종기가 났)증상이 별걸게 부어 오고 아플 때 붉은 고추 껍질을 소주에 짖어 바르거나 고춧가루를 소주에 개어 바른다. 껍질은 터지지 않을 정도로 불에 굽는 것이 좋다.

2)凍傷(동상; 흔히 발이 얼어 상처)예방엔 양말 속이나 신발 속에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는다. 많이 넣으면 두통이 난다.

3)학질(말라리아 병)하절기를 앞두고 예방에 힘쓸 것. 고춧가루3.75g을 약간 끓인 물에 섞어서 복용한 후 우유1컵이나 1컵의 밥물을 마신다.

4)胃寒胃痛(위한위통; 위가 차고 위가 아픔)엔 고춧가루 3.75g에 식초 2~3방울 넣고 끓인 물로 개어 더워지면 마신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에 마시면 아니 된다.

5)수박중독엔 빨간 고추 2~3개를 잘게 썰어서 끓인 물 한 그릇에 담근 다음 식혀서 천천히 마시면 치유된다.

◇편집국에서

○...고성군 주둔 육군 22사단이 지난 5월 13년만에 신병교육대 면회제도를 부활했다. 이날 면회에는 전국에서 500여명의 가족 친지들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인원이 고성에 있는 신병교육대를 찾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면회객들이 자가용으로 새벽 일찍 출발해 아들을 만나고 바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신병교육대 면회제도 부활이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신병들이 가족과 함께 잠시 외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